

전북 아름다운 산하 예술로 승화

강정진 서양화가, 23일까지 전주 평화의전당서 23회 전시회 개최... 도내 유명 명소 그림에 담아

우리 고장이 낳은 천재 화가인 강정진 전 예원예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가 생애 23번째 전시회를 오는 23일까지 전주 평화의전당 1층 전시실에서 연다.

강 화백은 이번 전시회에 자신이 애지중지 아끼던 작품 55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강 화백은 예원예술대학교를 정년 퇴임한 후 전주와 서울을 오가며 작품활동에만 매진하고 있기에 이번 전시회가 갖는 의미가 더 특별하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신의 태어난 고장인 완주의 절경인 '붉은 산의 가을(동상면에서)' 등 소장가가 소장하기에 좋은 큰 작품과 작은 작품을 통해 전북의 아름다운 산하를 소개한다.

강 화가는 아르누보(Art Nouveau=순수예술과 응용예술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을 무너뜨리는 미술 사조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유행하였으며, '새로운 미술'을 의미한다)를 추구하는 화가로 널리 알려졌다.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은 대부분 전북 도내의 유명 명소를 많이 그려서 전시한다.

동상면을 그린 '붉은산의 가을', 구이를 그린 '겨울의 노래', 임실을 그린 '하늘빛'과 '붉은 구름', 운주 산북리를 그린 '물 건너 고향', '죽음의 대문산', 마이산, 동산동을 그린 '봄봄봄', 금구를 그린 '봄노래', 중인리를 그린 '복



우리 고장이 낳은 천재 화가인 강정진 전 예원예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가 생애 23번째 전시회를 오는 23일까지 전주 평화의전당 1층 전시실에서 연다.

사꽃 고향', 대둔산을 그린 '산마루', 임실 호수를 그린 '평화의 빛', 변산을 그린 '푸른 하늘 은하수', 김제평야를 그린 '초여름의 빛' 등의 작품을 통해 전북의 아름다운 산하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더 주목된다.

이러한 전북의 산하 명장면을 서정성 있게 표현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특히 작가는 그림물감을 아끼지 않고 듬뿍 듬뿍 두텁게 그려서 오랜 기간의 작품 보존에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화가의 작품은 서울 유명 화랑과 유명 소장

가들의 애장품으로 널리 알려져서 유명 컬렉터들이 많이 소장하고 있기도 하다.

화가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태어나 그림을 독학으로 공부해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는 23일까지 이어지며, 평화의 전당은 전주시 완산구 바람쐐는 길 12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전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문의 전화는 063-288-5755번이다. 강정진 화가 문의 전화는 010-2632-0331번이다. /이만호 기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출간

전북대 법의학고실 이호 교수, 죽음·삶 인문학 담겨

전북대학교 법의학고실 이호 교수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웅진지식하우스)을 출간했다.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발견한 인생의 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따뜻한 인간미를 이 책에 담아낸 것. 이에 따르면 작가는 이 책에서 그동안 마주한 여러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마냥 침울하지만은 않다. 때론 유쾌하게, 때론 한없이 따뜻하게, 그리고 때론 사회의 부조리를 짚어내며 그가 견지해 온 삶의 시선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그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는 삶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직업의 특성상 그는 언제나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다. 죽음을 배울수록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이 더욱 선명해졌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책은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한 다양한 사례를 다룬다. 부검실에서 만난 주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훈과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잘 살고 싶다면 죽음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전한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가족의 슬픔, 예상치 못한 이별의 무게, 피할 수 있었던 죽음 등 그 누구든 마주할 삶의 마지막

막을 섬세한 통찰로 풀어내며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책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 '살은 죽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 등 크게 세 개의 부로 구성됐다.

단순히 죽음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동 학대 피해자의 부검을 통해 밝혀진 진실, 사고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기록하며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과정 등 법의학자가 경험한 가슴 먹먹한 순간들이 담겨 있다.

또한, 책 곳곳에서 인간의 관계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비로소 관계의 소중함과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다. 그의 이러한 통찰은 독자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물리학자 김상욱 경희대 교수는 이 책을 두고 "죽음을 공부하는 것이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했고, '별 것 아닌 선의'의 저자 이소영 제주대 교수는 "이 책엔 우리에게 언젠가 도래할 죽음이 지금 여기의 삶에 건네는 조언들이 있고, 직업 윤리와 시민 윤리가 만나 빛나는 더없이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다"고 평했다.

SBS 도준우 PD는 "이 책을 통해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이의 삶에 대한 통찰력에 감탄했고, 숱한 죽음의 현장에서 걸어 올린 우리 공동체를 위한 진심어린 당부에 눈물이 났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20일부터
전주한복문화창작소 성과 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0일부터 전주한복문화창작소의 성과를 담아 낸 '한 마디'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전시에서는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한복 계승과 교육 △한복 문화관광 △한복 기부 캠페인 △예비 한복인들을 위한 공간 공유 등 다양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18일 전당에 따르면 전시는 한복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탐색하고 다양한 활용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 △한복, 시간의 실을 잇다 △한복 행사 '한복, 모두의 무대가 되다' △계승교육 '한복, 배움의 씨앗을 심다' △문화상품 '한복, 우리의 손끝에서 피어나다' 등 모두 4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특히, 전주한복문화창작소 행사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전시와 함께 전통한복의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소품, 리폼 교육) 결과물, 한복문화상품 키트 제작과정 등 그간 축적된 성과를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태권도장 갯성비 여행 상품 '인기'

태권도진흥재단,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도장 수련생들의 태권도인 방문 증가를 위해 수련과 여행을 결합한 '태권도장 갯성비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실적이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태권도장 갯성비 여행 상품'은 10명 이상의 태권도장 수련생을 대상으로 당일과 1박 2일 상품으로 구성되었다. '당일' 상품은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과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 모노레일 및 전망대, 체험관 YAP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식비를 포함해 참가자 1인당 1만 1천원에 하루 종일 태권도원에서 즐길 수 있다. '1박 2일' 상품은 당일 상품 콘텐츠에 더해 연수와 수련 등 더 많은 시간동안 태권도원에 머물며 발표회 등 도장 자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1인 3만 원대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장 갯성비 여행 상품' 참가 도장과 수련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콘텐츠 이용료를 비롯해 수련장 대관 등에 50% 이상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전국에서 연인원 3천 5백여명이



참가하는 등 전년 대비 참가 도장 수는 2.5배 증가, 수련생은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은 "태권도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북권과 대전·충청권 뿐만 아니라 경기, 서울, 경남, 경북,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태권도장 갯성비 여행 상품을 통해 태권도원을 방문했다"라며 "상품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내년도 태권도원을 찾는 도장 수련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웹툰만화콘텐츠학과, 공모전 석권

전주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가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웹툰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18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관한 '제1회 전북웹툰공모전'에서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재학생들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비롯해 총 4개의 상을 휩쓸었다. 특히, 대상을 받은 이현지?최예지 학생은 지역적 특색과 독창적인 스토리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제1회 천안 K-컬처박람회 웹툰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역적 요소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조운숙 학과장은 "학생들이 지역적 특색과 독창적인 스토리 구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이어 수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웹툰만화콘텐츠학과는 도내 유일한 스토리 중심 웹툰 관련 학과로, 만화가 갖고 있는 독특하고 다채로운 표현방식과 학생들의 상상력을 융합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웹툰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